

억압적 대처 유형과 공감 간 관계에서의 특성메타-기분의 중재효과*

김진영

고영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억압적 대처 유형과 공감 간 관계에서의 특성메타-기분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학생 248명(남자 92명, 여자 156명)에게 정서 공감 척도, 특성메타-기분 척도,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명백 불안 척도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을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명백 불안 척도에서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고불안-고방어 집단, 고불안 집단, 억압 집단, 저불안 집단.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통해, 억압적 대처 유형과 특성메타-기분이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특성메타-기분은 억압적 대처 유형과 공감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중재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불안, 방어, 그리고 공감 간 관계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공감, 특성메타-기분, 억압, 대처, 중재효과

* 본 연구는 20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Society에서 발표되었고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214-H00001).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고영건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Fax : 02-3290-2662 / E-mail : elip@korea.ac.kr

억압(repression)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인 개념들 중 하나다. 비록 Freud가 억압을 방어기제 중 하나로 개념화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기는 했지만, 그가 이론화하기 전에도 억압이라는 개념은 존재했다(Davis & Schwartz, 1987). 억압은 견디기 힘든 내면의 갈등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Vaillant, 1977). Freud(1957)에 따르면, “억압의 본질은 무언가가 의식에 떠오르지 않도록 주의 전환하는 것이다”(p.147).

마치 마취제가 통증을 지각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억압도 잊고 지내는 동안만큼은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적응적일 수 있다(Vaillant, 1992). 하지만 억압에 의한 기억 상실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적응 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Vaillant, 1992).

억압적인 대처는 다양한 정신-신체적인 질환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억압은 고혈압(Henry, 1988), 두통(Packard, Andrasik, & Weaver, 1989), 심혈관 장애(Harenstam, Theorell, & Kaijser, 2000), 암(Hiller, 1989), 요통(Albrecht, 2001), 천식(Yellowlees & Ruffin, 1989) 그리고 당뇨와 류마티스성 장애(Phipps & Steele, 2002) 등의 만성적인 질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억압은 전통적으로 무의식을 강조하는 정신 역동적인 접근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하지만 억압 현상에 대해서는 무의식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 이론이다. Newman, Duff와 Baumeister(1997)는 무의식을 가정하지 않고도 억압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모델을 제안

하였다. 그들은 억압이라는 표현 대신 사고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적응을 유발하는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에서의 억제와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이하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기술하고 있는 성숙한 방어기제 중 하나인 억제는 비록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Vaillant(2000)는 성숙한 방어기제로서의 억제가 혼란스러운 문제, 욕구, 감정 혹은 경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합리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억압적인 사람과는 달리, 기억 상실로 인한 신경증적인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Newman, Duff와 Baumeister(1997)의 사고억제는 성숙한 기제로 분류되는 DSM-IV의 억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징을 갖는다.

Newman, Duff와 Baumeister(1997)에 따르면,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루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러한 경험과 연관된 사고내용들을 직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의도하지 않았던 역설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회피적인 시도를 할 경우, 멀리하고자 하는 사고내용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분명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반동효과(rebound effect)라 한다.

원치 않는 생각에 대한 회피적인 노력은 일반적으로 주의분산자(distractor)를 사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주의분산자란 회피하고자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사고내용을 말한다. 사람들은 원

치 않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특정 주의분산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다가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새로운 주의분산자가 선택된다. 나중에 그 새로운 주의분산자가 사람들의 주의를 붙들어두는 데 실패하게 되면, 원치 않는 생각이 또다시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또 다른 주의분산자를 요구하게 된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원치 않는 생각에 직면하는 것을 막는 데는 유용하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될 경우 원치 않는 생각과 주의분산자가 동시에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로서 주의분산자와 원치 않는 사고 간에 연합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회피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원치 않는 생각과 주의분산자 간 연합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회피적인 노력이 장기화될 경우, 원치 않는 생각들에 대한 주의분산자들이 오히려 원치 않는 생각 그 자체를 떠올리도록 하는 인출단서 세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회피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장기기억 체계 내부에서 원치 않는 생각이 다양한 관념들과 연합되면, 역설적으로 원치 않는 생각은 빈번하게 활성화될 것이며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Macrae, Bodenhausen, Milne와 Jetten(1994)은 이러한 반동효과를 방어적인 감찰과정(ironic monitoring process)으로 개념화하였다. 방어적인 감찰과정이란 원치 않는 사고내용이 의식 속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찰과정은 회피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멀리하고자 하는 대상과 연관된 어떤 사고내용들에 매우 민감해지도록 만든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은 회피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오히려 원치

않는 생각이 인식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원치 않는 생각에 대한 회피적인 노력을 개념적으로 반동효과와 방어적인 감찰과정 중 어느 쪽으로 정의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동일하다. 즉, 억압 집단이 부정적인 사고 내용을 의식에서 없애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왜 억압이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으로 평가받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억압은 정신역동적인 이론에서처럼 무의식적인 기제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사고억제 이론에서처럼 의식적인 기제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이론 모두 억압 현상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첫째, 억압은 단순한 회피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억압자들에 대한 연구들(예컨대, Weinberger, Schwartz, & Davidson, 1979)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혹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회피적인 특성이 주로 강조되었다. 하지만 만약 억압자가 오직 수동적인 형태의 회피 기제를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인식을 직면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지적인 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언어 표현과 대면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신문 기사를 읽거나 뉴스를 시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압은 수동적인 회피 그 이상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억압은 자신의 분노와 자기 이외의 다른 대상들의 분노를 불균형적으로 인식하는 매우 능동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억압자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 내용들을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자신과

관계된 경우에만 회피적인 노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불균형적 인식과정을 통해 억압을 하게 되면, 지적인 생활 그 자체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억압은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인 투사(projection)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즉 억압하려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Pyszczynski, Goldenberg, Solomon, Cather, Gat, & Sideris, 1995).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Freud(1896/1962)는 누군가가 타인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분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억압하는 대신 투사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면의 분노감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타인에 대해서 과도한 불신감과 혐오감을 표현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Vaillant(1977)는 억압이 투사와 결합하게 될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받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서 억압자들이 타인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인 투사를 보이는 점을 규명한 연구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Newman, Duff와 Baumeister(1997)의 연구로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행동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인상을 주는 여자가 등장하는 비디오를 피해자에게 5분간 보여준 뒤에 그 여자에 대해서 6가지 성격척도에 따라 평가하게 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 억압자는 비 억압자에 비해, 비디오 속의 중립적인 인물이 피해자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

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남자 또는 여자)과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기록지를 제시해 주고서 그 모델과 자신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 Schimmel, Pyszczynski, Greenberg, O'Mahen과 Arndt(2000)의 연구이다. 그들에 따르면, 분노 억압자는 비 억압자에 비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 억압자가 대인관계에서 공감(empathy)을 더 적게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심리학에서 공감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Theodor Lipps가 19세기에 주로 미학 분야에서 활용되던 'Einfühlung'을 착시와 대인 관계의 이해 영역에 적용하면서부터였다(Jahoda, 2005). 그 후에 Titchner(1909, 1910)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주로 동정(sympathy)으로 번역되던 'Einfühlung'이 동정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Titchner(1909, 1910)가 용어를 명료하게 정의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그는 'Einfühlung'을 empathy로 번역함으로써, 심리학에서 공감이 동정과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의 형태로 연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Wispe(1986)는 동정과 공감이 개념적으로는 유사해 보일지라도,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Wispe(1986)에 따르면, 동정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마땅히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지각하는 것"(p.318)을 말한다. 그리고 공감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들을 무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자기-인식적인 노력(p.318)"을 의미한다. 공

감에서 자기는 이해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며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면에 동정에서는 자기 인식 수준이 감소되어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보다는 그들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시된다.

공감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orke, 1972; Chandler & Greenspan, 1972; Gladstein, 1977). 박성희(2004)는 공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공감이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그리고 의사소통적 요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개념들로는 감정의 재인(recognition of emotion)과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를 들 수 있다. Feshbach(1975)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 상태를 식별하는 감정의 재인은 공감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적 인지 조건이다. 이러한 감정의 재인을 위해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상황적인 단서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Strayer, 1980). 관점취하기는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타인의 역할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각적 경험과 활동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Feshbach, 1978).

공감은 언어적으로 “공유된 정서(shared affect)”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어 그 자체에 이미 정서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박성희, 2004). Hoffman(1984)에 따르면, 공감은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더 잘 들어맞는 정서적 반응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주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를 의미한다. 공감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적인 일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공명(resonance) 또는 반향(reverberation)이 있다. Kohut(1978)에 따르면, 공감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인간적인 메아리(echo)에 해당된다.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는 공감의 주체가 타인에 대해 느낀 바를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Truax & Carkhuff, 1965). 공감의 정의에 이러한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시킨 최초의 학자는 Rogers라고 할 수 있다(박성희, 2004). Rogers(1957, 1975)는 공감을 심리치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감이 단순히 정서 및 인지적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Rogers(1975)에 따르면, 공감은 모순적인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정은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지각 세계에 들어가 매 순간 타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공감이 타인이 경험하는 것만을 대리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개인은 두려워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기 보다는 왜곡된 형태(예컨대, 정서적 억압)로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은 그 개인이 감지하지 못한 그의 주관적인 세계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주는 과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Vaillant(1977)에 따르면, 투사와 공감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경계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투사와 공감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공감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 기초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반

면에 투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감정을 지닌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Vaillant, 1977). 둘째, 공감에서는 그 방향이 타인에게서 자기로 향하는 반면에 투사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출발점이 된다 (Eisenberg & Strayer, 1987). 셋째, 공감적인 사람은 대상에 대해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투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과도한 감정적인 개입을 보인다(Dymond, 1950).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들(Norman & Ainsworth, 1954; Norman & Leiding, 1956)에서는 공감과 투사가 부적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man과 Ainsworth(1954)는 GAMIN(The Guilford-Martin Inventory of Factors)을 사용하여, 공감과 투사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공감은 어느 개인이 타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특성을 실제로 타인이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또 투사는 어느 개인이 자신에게는 없지만 타인에게에는 존재한다고 보고한 특성을 실제로는 타인이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Norman과 Ainsworth(1954)의 연구에서 공감과 투사는 -.65의 상관을 나타냈다. Norman과 Ainsworth(1954)의 연구에서는 74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Norman과 Leiding (1956)는 47명의 대학생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 후, Norman과 Ainsworth(1954)의 연구에 포함된 74명과 합쳐 모두 121명을 대상으로 공감과 투사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감과 투사는 -.69의 상관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억압이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인 투사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정서 억압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억압과 공감의 관계를 직접 조사한 경험적인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공감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의사소통에서의 유능성과 사회적인 민감성을 요구하는 데 반해(Johnson, Cheek, & Smither, 1983), 정서적 억압은 정서적 민감성과 반대되는 차원에 속하는 특성인 동시에 정서적 의사소통에서의 유능성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갖는다(Bonano & Singer, 1990). 또 억압은 이타주의와 같은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정신건강과 부적의 상관(Bonano & Singer, 1990; Vaillant, 1990, 1992)을 보이는 반면에 공감은 이타주의 및 정신건강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성희, 1994; Batson, et al., 1991; Krebs, 1975; Toi & Batson, 1982).

공감은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Salovey & Mayer, 1990). 정서지능은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yer & Salovey, 1997). 정서적인 능력 모델에 기초하여 정서 지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MSCEIT(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ayer, Salovey, & Caruso, 2002)가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인 특성메타-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이하 TMMS,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점수는 MSCEIT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Gohm & Clore, 2002a). 메타-기분(meta-mood)은 자신의 기분이나 정서에 대한 사고와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alovey, 1996). TMMS는 감정의 명료성(Clarify of Feelings),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Attention to Feelings), 회복(Repair)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의 명료성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술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 척도는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정서적 경험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복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Salovey 등(1995)에 따르면, 정서적인 유능성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체험하는 정서들을 명료하게 변별하고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잘 복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Gohm과 Clore(2002a, 2002b)는 지각된 정서지능(self-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혹은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지표로서의 TMMS 총점이 긍정적인 재해석 및 성장, 능동적인 대처, 사회적 지지의 추구 등 적응적인 대처 방식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 그들에 따르면, TMMS 총점수는 행복의 수준, 행복감을 경험하는 시간의 비율, 긍정적인 정서를 체험하는 빈도, 자기 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도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억압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심리측정적인 타당성의 문제였다. Freud를 비롯해서 억압을 연구했던 초기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통찰-지향적인 이론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억압을 조작적인 구성개념의 형태로 정의하지 않았다(Weinberger, 1990). 억압 연구에서의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1960년대의 실험실 연구자들은 주로 억압-민감성 척도(Repression-Sensitization Scale; 이하 RSS, Byrne, 1961)를 사용하였다. Byrne(1961)은 억압자를 “정서적인 자극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역치를 나타내는 사람들”(p.335)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RSS는 변별타당도의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었다(Weinberger, 1990). RSS는 불안 및 고통에 대한 측정치들과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Sullivan & Roberts, 1969). 이러한 점은 RSS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불안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억압자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RSS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자들은 RSS와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이하 MCSDS, Crowne & Marlowe, 1960)를 결합해서 사용하였다(Weinberger, 1990). Freud(1930/ 1961)가 지적한 바대로, 억압적인 방어는 외견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데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한 지각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Weinberger, 1990). MCSDS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행동들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Crowne & Marlowe, 1960). 이러한 MCSDS는 주로 개인의 방어적인 태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RSS와 MCSDS를 결합해서 사용했던 연구들은 “비방어적 억압자들(nondefensive repressors)”과 같이 개념적으로 모순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Weinberger, 1990). 그 후에 Weinberger, Schwartz와 Davidson(1979)은 Taylor 명백 불안 척도(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이하 MAS, Taylor, 1953)와 MCSDS를 활용해 억압적 대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높은 수준의 불안과 방어를 동시에 나타내는 고불안-고방어 집단이다. 이들은 과사회화(oversocialized)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Weinberger, 1990). 두 번째 집단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지만 방어적이지는 않은 고불안-저방어 집단이다. 이들은 민감자(sensitizer)라고 할 수 있다(Bonanno & Singer, 1990). 세 번째 집단은 저불안-저방어 집단이다. 이들은 자기-안전감(self-assured)을 나타내는 진정한 저불안 집단에 해당된다(Weinberger, 1990). 마지막 집단은 낮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지만 동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저불안-고방어 집단이다. 이들이 바로 낮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억압자에 해당된다(Bonanno & Singer, 1990). Weinberger(1990)에 따르면, 억압자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내게 위해를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p.374)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반적으로 저불안 집단보다도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지만, 얼굴 표정, 목소리, 객관적인 과제 수행, 생리학적인 지표 등의 스트레스 관련 지표들에서는 만성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들보다도 더 심한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억압자가 보이는 주관적인 자기보고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행동 간 괴리는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증명되었다. 예를 들면, Furnham과 Traynar(1999)는 Weinberger, Schwartz와 Davidson(1979)의 모델에 기초하여 억압자들의 특성을 조사한 28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이러한 억압적 대처 유형 모델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억압자들이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과 연관된 사고 내용들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Newman, Duff, & Baumeister, 1997)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억압 집단에서는 지각된 정서적인 유능성이 타인에 대한 공감 수

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조적으로 비억압자들은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이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특성메타-기분이 잠재적으로 억압적인 대처와 공감 간 관계에서 중재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중재변인이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위계적 회귀 분석 또는 변량 분석 절차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할 경우 중재효과가 있다고 판단 내리게 된다(Frazier, Tix, & Barron,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Weinberger(1990)의 억압적 대처 유형 모델에 기초하여, 억압적 대처 유형과 공감 간 관계에서의 특성메타-기분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억압적 대처 유형과 공감 간 관계에서 특성메타-기분은 중재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억압 집단에서는 지각된 정서적인 유능성이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비억압 집단에서는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이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심리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248명(남자 92명, 여자 156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한 후, 실험 참여 점수를 받았다.

측정도구

한국판 TMMS

지각된 정서 지능 혹은 정서적 유능성을 평가하는 TMMS는 감정의 명료성,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 회복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의 명료성 척도는 정서를 명명하는 능력과는 정적인 상관(Gohm & Clore, 2002a), Weinberger 적응 검사(Weinberger Adjustment Inventory; 이하 WAI)의 고통 하위 척도와는 부적인 상관(Salovey et al., 1995)을 나타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 척도는 자신의 감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Gohm & Clore, 2002a), WAI의 억압-방어(repressive-defensiveness) 하위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Salovey et al., 1995). Salovey 등(1995)에 따르면, 회복 척도는 낙관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 조절 및 WAI의 고통 하위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는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및 Palfai(1995)가 제작한 TMMS를 우리말로 번안한 후 51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는 TMMS가 “Salovey 등(1995)이 주장했던 대로 정서지능의 주요한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95)고 보고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에 따르면, TMMS의 요인구조 상에서 감정의 명료성,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 회복의 세 가지 차원이 유의미한 하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거관련 타당도의 면에서 TMMS의 하위 척도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하위 개념들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과도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TMMS의 세 가지 하

위 척도들은 모두 감정부전(Alexithymia)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제작한 한국판 TMM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ohm과 Clore (2002a)의 연구에서처럼,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지표로 TMMS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Gohm과 Clore(2002a)에 따르면, TMMS가 제작되었던 초기에는 세 가지 하위 척도들에 대한 지지 증거가 존재했었지만 최근에 보다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TMMS 전체 척도가 상당히 양호한 내적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MMS의 전체 척도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주의집중 하위 척도의 경우 .87, 명료성 하위 척도의 경우 .87, 회복 하위 척도의 경우 .78 그리고 전체 척도의 경우 .83이었다.

명백 불안 척도

MAS는 만성적인 불안 증상들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Taylor(1953)는 정신과 환자들이 정상 집단 보다 더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학생 집단과 정신과 환자 집단의 MAS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상 집단의 중앙값은 13점인 반면에 정신과 환자 집단의 중앙값은 34점으로 2.6배나 차이가 났다. MAS를 MCSDS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억압적 대처 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Weinberger와 Schwartz 및 Davidson(1979)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이었다. Bendig(1956)는 50 문항의 MAS가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 문항의 단축형 명백 불안 척도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승(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도는 .84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3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MCSDS는 방어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MCSD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들의 절친한 친구들은 피험자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형태의 자기-통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Weinberger, 1990). 본 연구에서는 이용승(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도는 .71이었다.

정서 공감 척도

Mehrabian과 Epstein(1972)은 공감을 대리적인 정서 반응이라고 정의하고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33 문항의 정서 공감 척도(Emotional Empathy Scale; 이하 EES)를 제작하였다. Mehrabian과 Epstein(1972)은 EES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EES 점수가 공격행동 및 도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EE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생들은 덜 공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도움 행동을 나타냈다. 그리고 Ciarrochi, Chan, 및 Caputi(2000)에 따르면, EES 점수는 다요인 정서지능 척도(Multidimensional Emotional Intelligence Scales; MEIS) 점수와 중간 범위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희(200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도

는 .73이었다.

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248명에게 한국판 TMMS, MAS, MCSDS 그리고 EES를 실시하였다. Weinberger, Schwartz와 Davidson(1979)이 제안한 방법에 기초해, MAS와 MCSDS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생들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고불안-고방어 집단(36명), 고불안-저방어 집단(74명; 이하 고불안 집단), 저불안-고방어 집단(74명; 이하 억압 집단), 저불안-저방어 집단(64명; 이하 저불안 집단). 대학생 전체 집단에서의 MAS의 평균은 8.22(±4.62)였고 MCSDS의 평균은 13.99(±4.52)였다. 집단 구분을 위한 MAS의 기준 점수는 9점 그리고 MCSDS의 기준 점수는 14점이었다. MAS에서 9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또 MCSDS에서 1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과사회화 특성을 지닌 대학생들은 고불안-고방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MAS에서 9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MCSDS에서는 14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민감자들은 고불안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 MAS에서 9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지만 MCSDS에서는 1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저불안-고방어 특성을 지닌 대학생들은 억압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MAS에서 9점 미만의 점수를 받고 MCSDS에서 14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자기-안전감 혹은 저불안-저방어의 특성

표 1. 억압 대처 유형별 MAS와 MCSDS 평균 점수

	억압 집단 (n=74)	저불안 집단 (n=64)	고불안 집단 (n=74)	고불안-고방어 집단 (n=36)
MAS	4.70(±2.40)	4.94(±2.46)	12.97(±2.93)	11.50(±2.32)
MCSDS	18.38(±2.72)	11.36(±2.39)	10.18(±2.90)	17.57(±2.39)

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저불안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1에는 네 집단의 MAS와 MCSDS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억압적 대처 유형과 특성메타-기분이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원변량분석 대신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박광배(2003)에 따르면, 일원변량분석에서는 동일 사례 수 가정의 충족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원변량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러한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원변량분석에서 산출되는 두 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자승합과 집단 내 자승합을 더한 것이 전체 자승합과 같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실험조건의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이원변량분석의 독립변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원변량분석보다는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azier, Tix와 Barron(2004)의 제안에 기초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속 변인인 TMMS의 총점을 z 점수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범주변인과 연속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회귀계수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Frazier, Tix, & Barron, 2004).

본 연구에서는 억압 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비교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계적 회귀 분석 과정에서 집단을 나타내는 범주변인에 대해서 참조코딩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이 억압 집단이기 때문에, 억압 집단에 대해서 모든 더미 변인(dummy variable)의 값을 0으로 코딩하였다. 박광배(2003)에 따르면,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어떤 코딩 값을 채택하건 간에 독립변인의 효과는 동일하게 산출되지만, 중다회귀계수들의 값은 코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결 과

표 2에는 억압 대처 유형별 EES와 TMMS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억압 집단의 경우, EES 점수는 가장 낮았으나 TMMS 점수는 가장 높았다.

표 3에는 EES, TMMS 그리고 집단 관련 참조코딩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EES는 TMMS 및 고불안-고방어 집단과 억압 집단 간 비교를 나타내는 코딩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

표 2. 억압 대처 유형별 EES와 TMMS 점수 평균

집단	EES <i>M(±SD)</i>	TMMS <i>M(±SD)</i>
억압 집단(<i>n</i> =74)	38.57(±18.02)	79.11(±10.79)
저불안 집단(<i>n</i> =64)	40.20(± 2.62)	77.92(± 8.69)
고불안 집단(<i>n</i> =74)	44.61(±20.83)	70.49(±10.05)
고불안-고방어 집단(<i>n</i> =36)	48.67(± 2.79)	73.92(±11.19)

주. EES=Emotional Empathy Scale, TMMS=Trait Meta-Mood Scale.

표 3. EES, TMMS 그리고 집단 관련 참조코딩 변수 간 상관

	EES	TMMS	코딩1	코딩2	코딩3
EES					
TMMS	.13*				
코딩1	.13*	-.06			
코딩2	.07	-.31**	-.27**		
코딩3	-.06	.14*	-.24**	-.39**	

주. EES=Emotional Empathy Scale, TMMS=Trait Meta-Mood Scale. 코딩1에서는 고불안-고방어 집단에 1을 그리고 억압 집단에 0을 할당하였다. 코딩2에서는 고불안 집단에 1이 그리고 억압 집단에 0이 할당되었다. 코딩3에서는 저불안 집단에 1이 그리고 억압 집단에 0이 할당되었다. * $p < .05$, ** $p < .01$.

냈다. 또 TMMS는 고불안 집단과 억압 집단 간 비교를 나타내는 코딩2와 부적인 상관을 그리고 저불안 집단과 억압 집단 간 비교를 나타내는 코딩3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표 4에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해 억압적 대처와 공감 간 관계에서의 TMMS의 중재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다회귀모

형에서 참조코딩을 하는 경우, 각 기울기 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바로 참조집단과 나머지 집단들 간 평균치들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집단과 TMMS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단계

표 4. 위계적 회귀 분석을 활용한 TMMS의 중재효과 검증 결과

단계 및 변인	B	SE B	95% CI	β	ΔR^2
단계1					
집단					.05*
코딩1	12.07	4.22	3.76, 20.39	.20*	
코딩2	9.32	3.55	2.32, 16.31	.20*	
코딩3	2.09	3.50	-4.82, 8.99	.04	
TMMS(z 점수)	4.07	1.39	1.33, 6.80	.19*	.02*
단계2					
집단×TMMS					.06*
코딩1×TMMS	2.7	3.98	-5.07, 10.60	.05	
코딩2×TMMS	8.98	3.40	2.28, 15.68	.24*	
코딩3×TMMS	14.30	3.87	6.67, 21.92	.29**	

주. TMMS=Trait Meta-Mood Scale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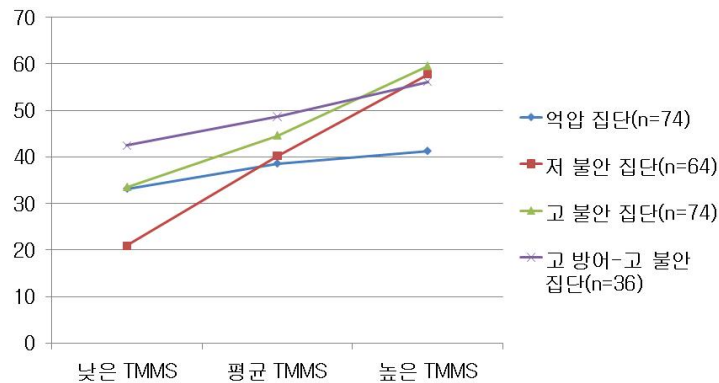


그림 1. 억압적 대처와 공감 간 관계에서의 TMMS의 중재효과

주. TMMS=Trait Meta-Mood Scale. 낮은 TMMS의 기준점으로는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떨어진 지점을 그리고 높은 TMMS의 기준점으로는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떨어진 지점을 선택하였다.

에서의 전체 설명 변량은 약 5%($R^2=.06$, 조정된 $R^2=.05$)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두 번째 단계에서의 전체 설명 변량은 약 10%($R^2=.12$, 조정된 $R^2=.10$)였다. 집단을 구분해주는 참조코딩 변인들에서 코딩2와 코딩3은 TMMS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코딩1은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

그림 1은 억압적 대처 유형과 공감 간 관계에서의 TMMS의 중재효과를 도시한 것이다. Frazier, Tix와 Barron(2004)이 사용한 방법처럼, 그림 1에서는 낮은 TMMS의 기준점으로는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떨어진 지점을 그리고 높은 TMMS의 기준점으로는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떨어진 지점을 선택하였다.

논 의

본 연구 결과, 억압적 대처와 공감 간 관계에서 특성메타-기분의 중재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방어-고불안 집단은 특성메타-기분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억압 집단보

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고불안 집단과 억압 집단 그리고 저불안 집단과 억압 집단 간 관계에서는 특성메타-기분의 수준에 따라,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불안 집단은 특성메타-기분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억압 집단과 같은 수준의 공감을 나타냈지만, 특성메타-기분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억압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나타냈다. 또 저불안 집단은 특성메타-기분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억압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공감을 나타냈지만, 특성메타-기분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억압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공감, 불안, 방어 그리고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간 관계에 대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비록 특성메타-기분이 공감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 지라도, 방어적인 태도는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고불안 집단과 저불안 집단의 경우, 자신의 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믿음이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반면에, 억압 집단과 고방어-고불안 집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방어-고불안 집단과 억압 집단은 높은 수준의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록 억압 집단보다 고방어-고불안 집단에서 공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을 지라도, 두 집단 모두에서 자신의 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믿음이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는 못했다. 특히 억압 집단의 경우, 특성메타-기분의 평균 점수는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의 평균점수는 가장 낮았다. 또 억압 집단은 특성메타-기분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공감 수준이 증가하는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울기가 네 집단 중 가장 완만하였다.

둘째, 타인에 대한 공감 과정에서는 불안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수준이 낮은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불안 집단은 특성메타-기분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나머지 세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공감을 나타냈지만, 특성메타-기분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고방어-고불안 집단 및 고불안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공감을 나타냈다.

셋째, 비록 저불안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더 적게 동요하게 될 지라도, 특성메타-기분도 함께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이 적응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적응 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은 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박성희, 1994; Batson, et al., 1991; Krebs, 1975; Toi, & Batson, 1982). 하지만 저불안 집단은 특성 메타-기분이 낮을 경우에 가장 낮은 수준의 공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메타-기분이 낮을 경우에 저불안 집단은 정서적인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서적 둔감성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억압적 대처 유형 중에서 억압 집단의 TMMS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Salovey 등(1995)에 따르면,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 척도는 WAI의 억압-방어(repressive-defensiveness) 하위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가 Salovey 등(1995)의 결과와 불일치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TMMS는 객관적인 정서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지각된 정서 지능 혹은 정서적 유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라는 점이다. 억압적 대처 유형 중에서 억압 집단의 TMMS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점은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다. 대조적으로 고불안-고방어 집단의 경우에는 높은 불안 수준이 자신의 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TMMS의 하위 척도 점수가 아니라, 총점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억압 집단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고통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감정의 명료성 척도와 회복 척도는 WAI의 고통 하위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Salovey et al., 1995). 또 한국판 TMMS에서 감정의 명료성 척도와 회복 척도는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 척도보다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더 많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TMMS의 총점에는 억압 집단이 감정에 대해 주의집중을 회피하려는 특성보다는 주관적으로 고통을 낮게 지각하는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심리치료 및 상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수련생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ogers(1957, 1975)가 지적한 대로, 공감은 심리치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해당된다. 본 연구 결과, Weinberger(1990)의 억압적인 대처 유형 중 저불안 집단과 고불안 집단, 즉 비방어적인 집단의 경우에는 특성메타-기분(혹은 지각된 정서 지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방어적인 집단, 즉 억압 집단 및 과사회화 집단의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재변인으로 정서 지능 자체가 아니라, 소위 자기-지각된 정서지능 혹은 정서적 유능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TMMS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TMMS는 한국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MSCEIT는 한국어 번역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록 TMMS 점수가 MSCEIT와 정적인 상관을 보일지라도(Gohm, & Clore, 2002a), 개념적 정의 자체에 이미 타인에 대한 공감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정서 지능과는 달리, 특성메타-기분에서는 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태도와 믿음이 측정된다. 따라서 차후에 능력으로서의 정서 지능을 측정하는 MSCEIT를 활용해서 정서지능의 중재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불안-고방어 집단의 특성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고불안-고방어 집단은 36명으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Weinberger, Schwartz와 Davidson(1979)의 패러다임을 활용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록 고불안-고방어 집단이 민감자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지라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의 특성이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에 Weinberger, Schwartz와 Davidson(1979)의 패러다임을 활용한 일부 연구에서는 고불안-고방어 집단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Davis & Schwartz, 1987). 따라서 고불안-고방어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억압 집단, 저불안 집단, 고불안 집단 그리고 고방어-고불안 집단의 특성이 임상 장면에서 표집된 해당 집단들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임상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공감은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해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 점수는 자기-지각된 공감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공감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isenberg와 Strayer(1987)에 따르면, 공감을 평가하는 방식은 자기보고식 검사 이외에도 실험적 방법, 투사적 도구를 활용한 방법, 생리적인 지표를 활용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자기보고식 척도 이외의 방법을 활용해 공감을 측정할 후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용승 (2000). 강박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Albrecht, H. (2001). Medicinal diagnostics of pain between myth and reality—chronic lower back pain, an illness of the upright walk. *Forsch Komplementarmed Klass Naturbeikd.* 8, 288-29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DSM-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tson, C. D., Batson, J. G., Slingsby, J. K., Harrell, K. L., Peekna, H. M., & Todd, R. M. (1991). Empathic Joy and the Empathy - 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13-426.
- Bendig, A. W. (1956). The development of short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384.
- Borke, H. (1972).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2-269.
- Bonano, G. A., & Singer, J. L. (1990). Repressive personality styl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health and pathology. In J. L. Singer (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theory, psychopathology, and health.* (pp. 435-4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yrne, D. (1961). The repression- sensitization scale: rational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29, 334-349.
- Chandler, M. J., & Greenspan, S. (1972). Ersatz egocentrism: A reply to H. Borke. *Developmental Psychology*, 7, 104-106.
- Ciarrochi, J. V., Chan A. Y. C., & Caputi P. (2000).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539-561.
- Davis, P. J., & Schwartz, G. E. (1987). Repression and the inaccessibility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55-162.
- Dymond, R. (1950). Personality and empath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4, 343-350.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p.3-1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0.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children.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8). New York: Academic Press.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Freud, S. (1915/1957). Repression. In *The Standard edition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0(J. Strachey Trans.),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30/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In *The Standard edition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1(J. Strachey Trans.),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896/1962). Further remarks on the neuro-psychoses of defence. In *The Standard edition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3(J. Strachey Trans.), London: Hogarth Press.
- Furnham, A., & Traynar, J. (1999). Repression and effective coping sty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 465-492.
- Gladstein, G. A. (1977). Empathy and Counseling Outcome: An Empirical and Conceptual Review. *Counseling Psychologist*, 6, 70-79.
- Gohm, C. L., & Clore, G. L. (2002a). Affect as information: An individual-differences approach. In L. F. Barrett, & P. Salovey (Eds.), *The wisdom in feeling: Psychological processes in emotional intelligence* (pp.89-11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ohm, C. L., & Clore, G. L. (2002b). Four emotion traits and their involvement in attributional style, coping and well-being. *Cognition and Emotion*, 16, 495-518.
- Harenstam, A., Theorell, T., & Kaijser, L. (2000). Coping with anger-provoking situations, psychosocial working conditions, and ECG -detected signs of coronary heart diseas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 191-203.
- Henry, J. P. (1988). Stress, salt and hyperten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26, 293-302.
- Hiller, J. E. (1989). Breast cancer: a psychogenic disease? *Women Health*, 15, 5-18.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103-131).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hoda, G. (2005). Theodor Lipps and the shift from sympathy to empathy.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41, 151-163.
- Johnson, J. A., Cheek, J. M., & Smither, R. (1983). The structure of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299-1312.
- Kohut, H. (1978). *The search for the self: Selected writings of Heinz Kohut 1950-1978* (Vol. 2).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ebs, D.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Macrae, C. N., Bodenhausen, G. V., Milne, A. B., & Jetten, J. (1994). Out of mind but back in sight: Stereotypes on the reboun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08-817.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M. Brackett, & J. D. Mayer (Eds.), *Emotional intelligence* (pp.29-59). Port Chester, NY:

- National Professional Resources, Inc.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R. (2002).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SCEIT item booklet*. North Tonawanda, NY: MHS.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Newman, L. S., Duff, K., & Baumeister, R. F. (1997). A new look at defensive projection: Thought suppression, accessibility, and biased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980-1001.
- Norman, R. D., & Ainsworth, P. (1954). The relationships among projection, empathy, reality and adjustment, operationally defined.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8, 53-58.
- Norman, R. D., & Leiding, W. C. (1956).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ures of individual and mass empath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0, 79-82.
- Packard, R. C., Andrasik, F., & Weaver, R. (1989). When headaches are good. *Headache*, 29, 100-102.
- Phipps, S., & Steele, R. (2002). Repressive adaptive style in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Psychosomatic medicine*, 64, 34-42.
- Psy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Cather, C., Gat, I., & Sideris, J. (1995). Defensive distancing from victims of serious illness: The role of dela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3-20.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95-103.
-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Salovey, P.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ay to be smart?* Korea Institute of Social Psychiatry & Samsung Life Insurance Company.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Turvey, C., & Palfai, T.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125-2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immel, J., Psyzczynski, T., Greenberg, J., O'Mahen, H., & Arndt, J. (2000). Running from the shadow: psychological distancing from others to deny characteristics people fear in them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46-462.
- Strayer, J. (1980). A naturalistic study of empathic behavior and their relation to affective states and perspective-taking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815-822.
- Sullivan, H. S., & Roberts, L. K. (1969). The relationship of manifest anxiety to repression-sensitization on the MMPI.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763-764.
- Taylor, J. A. (1953).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and*

- Social Psychology*, 48, 285-290.
- Titchner, E. B. (1909). *Lectures on the experimental psychology of thought processes*. New York: Macmillan.
- Titchner, E. B. (1910). *A textbook of psychology*. New York: Macmillan.
- Toi, M., & Batson, C. D. (1982). More evidence that empathy is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281-292.
- Truax, C. B., & Carkhuff, R. R. (1965). Client and therapist transparency in the psychotherapeutic encou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3-9.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Vaillant, G. E. (1990). Repression in college men followed for half a century. In J. L. Singer (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theory, psychopathology, and health*. (pp.259-27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illant, G. E. (1992). *Ego mechanisms of defense: A guide for clinicians and research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Vaillant, G. E. (2000) Adaptive mental mechanism: Their role in a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89-98.
- Weinberger, D. A. (1990).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repressive coping style. In J. L. Singer (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theory, psychopathology, and health* (pp.337-38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inberger, D. A., Schwartz, G. E., & Davidson, R., J. (1979). Low-anxious, high-anxious and expressive coping styles: psychometric patterns and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69-380.
- Wispé, L. (1986).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e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14-321.
- Yellowlees, P. M., & Ruffin R. E. (1989). Psychological defenses and coping styles in patients following a life-threatening attack of asthma. *Chest*, 95, 1298-303.
- 원 고 접 수 일 : 2008. 4. 2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7. 10.
게 재 결 정 일 : 2008. 8. 2.

The Moderator Effects of Meta-Mo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sive Coping Style and Empathy

Jin-young Kim

Young-gun Ko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or effects of meta-mo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sive coping style and empathy. The Emotional Empathy Scale, the TMMS (Trait Meta-Mood Scale),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and the Manifest Anxiety Scale were administered to 248 university students (96 males, 156 females). Using both the average scores on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 and the Manifest Anxiety Scale as the cut-off score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high anxiety-high defensiveness, high anxiety, repression, and low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pressive coping style and trait meta-mood on empathy. The results showed that trait meta-mood exert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sive coping style and empath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lationships among anxiety, defensiveness, empathy, and self-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discussed.

Key words : anxiety, defensiveness, empathy, moderator effects, repressive coping style, TMMS (Trait Meta-Mood Scale)